

종교개혁 500주년 의미

성경말씀: 암8:11-13

1517년 10월 31일 독일 성 어거스틴 수도회 수사 신부이자 신학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95개 조항으로 정리한 천주교회 개혁의 글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였다. 종교개혁의 서막이 열린 순간이었다. 하나였던 서방 교회가 분열하여 현재의 천주교와 여러 개신교회로 나뉘는 사건이기도 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여신 이후에 인류 역사를 가장 크게 바꾼 사건은 주후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다.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시대에 온 유럽을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던 교황청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졌다. 교황청의 권위에 도전한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개인의 영혼의 자유, 인권, 자본주의의 윤리를 확산시키면서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치관으로 뿌리내렸다.”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는 정말 개혁될 수 있을까?’(1월 6일) 왜 한국 교회는 이것을 많이 언급하는?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돌아볼 때 이것은 사회를 전체적으로 한 번 변화시킨, 그냥 교회 개혁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바꾸는 하나의 운동이었기도 했고 역사적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교회에도 좀 적용이 되어서 한국사회까지 좀 바꾸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 인간에 대한 재발견에 대해서 얘기했던 인본주의로까지 나아가게 되고요. 성경은 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 구조 자체가 또 어떤 특정 계층의 지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껴안아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회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2017년에 종교개혁기념일인 10월 31일 경에 일산 킨텍스 홀을 빌려가지고 큰 행사

올해 기독교 뉴스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언급, <종교개혁 500주년 의미>

아모스 시대

기록 시기: 주전 760년경, 성격: 대언, 수신자: 북 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백성들

이름: 아모스는 ‘짐을 진 자’를 뜻한다. 대언자 아모스의 직업은 농부, 남 왕국 유다의 시민이었으나 북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되기 40년 전에 북 왕국을 향해 대언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문제

솔로몬 사후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메시아 계보인 다윗을 버리면서 배반 여로보암이 한 일: 1. 여로보암의 우려, 유대인들 1년 3차례 예루살렘(신12, 출23:14-17), 갔다가 안 오면 어찌하나?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벵엘에, 다른 하나는 단에 두고 신들이라고 말함 (28-29), 이방 종교의 특징: 형상을 만든다(롬1:22-23).

2. 자기의 종교를 위해 제사장을 만들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음(31), 조건 어린 수소 하나와 숫양 일곱 마리(대상13:9)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오직 아론의 후예만(출28, 29, 40 등)

3. 전 국민의 배교, 짬뽕(여호와 하나님 + 이방 신), 믿음 + 행위

멸망되기 40년 전 이스라엘의 특징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시리아를 정복하면서 백성들이 변영과 형통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방탕함과 사치와 불법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그 당시에는 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송아지 숭배와 바알 숭배가 혼합되어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가 되었다. 제사장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한국의 현실: <사유와 성찰>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개혁의 길을, 2017년 1월 6일 경향신문

“서울 강남권 대형 교회에서 장로는 정치인, 고위 관료, 법조인, 유력 교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아니면 좀처럼 되기 힘들다. 잘 알려진 얘기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 3년 넘게 일요일 주차관리를 하면서 교회 봉사활동에 힘썼는데 한 번 실패하고 나서야 장로로 선출되었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들의 학력과 자산, 지위 등은 가톨릭과 함께 모든 종교 가운데 단연 높다. 그런데 가톨릭은 종교에 대한 충성도(집회 참여와 기부금)에서 개신교보다 아주 낮다. 그런

점에서 개신교 신자, 특히 엘리트 신자의 종교에 대한 귀속의식은 가톨릭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다. 1517년 제국종교에 대한 ‘프로테스트(protest)’가 있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유럽인들은 잘 정리하지 못했다. 그들은 제국종교 대신 국민국가와 쌍을 이루는 국가교회를 탄생시켰는데, 권력과 종교의 야합, 아니 종교의 권력화는 모양만 달리하면서 계속되었다. 그런데 국가종교는 비유럽 세계에 이식되었고, 교회들은 이 비유럽의 사회들에서 다른 유형의 권력 카르텔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개신교는 그런 권력 카르텔의 중심세력을 형성하면서 과잉성장해 왔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송아지 숭배의 근원인 벵엘로 가서 왕과 백성들에게 부정과 탐욕과 술 취함과 간음과 학대를 버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기독교의 개혁 필요
 영적 교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4:12-13)

이러한 때의 가장 큰 특징: 말씀의 기갈(11-13)

1. 말씀들을 들을 수가 없다(11). 우상숭배, 제사장 부패, 종교 카르텔
2. 전국을 찾아다녀도 들을 수가 없다(12)
3. 기력이 넘치는 청년들과 처녀들도 기진한다(13). 시119:130 주의 말씀들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듣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다.

천주교의 설립

초대 기독교인들 엄청난 박해, 계속 불어나자 마귀의 전략 변화, ‘국가 종교’,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
 이때로부터 교황권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500년부터 1000년 이상 중세암흑시대

암흑시대의 특징: 제사장 계급 체제(priest), 신약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전 성도 제사장

마리아와 아기 예수 우상 숭배: 바빌론의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우상 숭배

모든 정보와 재산이 국가 교회로 몰림: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관리함, 종교 카르텔 형성

천주교 교리: 교회를 통한 구원, 유아세례, 행위 구원, 성경 변경 시도

행8:37, 벵전2:2, 요일5:7,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3구절, 베드로전후서만큼 짧은 성경

그 결과 오리지널 비잔틴 사본, 부패된 천주교 웨스턴/알렉산드리아 사본, 다수 사본, 소수 사본
 암흑시대 1000년, 천주교회는 소수 사본 라틴어 성경,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공통적으로 인정된 사본

마르틴 루터의 등장(Martin Luther: 1483~1536)

유대교라는 종교에 찌든 사울을 바울로, 천주교라는 종교에 찌든 루터를 회심시킴, 종교생활의 압박
 어거스틴 파 수도사, 신학박사, 천주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수도원 생활 금욕 경건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노력해도 안 되니
 더 금욕생활, “온 유럽에서 나만 그럴까?”, 주교의 권유에 따라 로마로 성지 순례를 감

로마의 교황과 주교들을 보니 말 그대로 가관이었다. 교황/주교들이 첩을 두고 가장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왕 대접을 받고 살면서 경건함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음

빌라도의 계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들이 용서되고 의롭게 될 줄 알고 해도 소용이 없다.
 실망과 낙심이 되어 다시 독일로 옴. 면죄부 판매: 바티칸 성당을 짓기 위해, 연옥의 죄들,

로마서 1장 16-17 말씀을 읽으면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됨을 깨달음

하나님의 의는 100% 믿음에 의해 얻는다. 이신칭의 이때에 그의 죄 짐이 풀렸다.

정확한 회심 날짜는 모른다. 1519년? 1517년의 종교개혁 불길, 평생 이신칭의
 천주교 중세암흑시대 특징: 아모스 시대와 동일, 우상숭배, 제사장 타락, 백성의 고통

말씀의 기갈, 말씀을 들을 수 없다. 부패된 천주교 사본,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니 어찌 알겠나?
 천주교는 극심하게 성경 반대, 금서 목록 1호 성경, 이런 단체가 보존한 성경이 어떻게겠는가?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이때로부터 불타오른 종교개혁, 인쇄술,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공인 본문)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레이나 발레라 성경, 디오다티 성경, 올리베탕 성경 등

전 유럽의 모든 성경이 천주교를 배격하며 다수 본문 채택, 천주교 본문은 부패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의 그 성경은 천주교 성경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이다.

영국과 영어의 발흥: 셰익스피어 당시 영어의 완성, 틴데일, 제네바,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

1611년부터 1970년대 NIV가 나올 때까지 100% 킹제임스 성경, 교리, 신학, 교회 확립 전 세계 복음화, 가장 많이 인쇄되고 팔리고 번역된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

시12:6-7, 마24:35,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는다.

얼마 전, 정성구 박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분당 한국 칼빈주의 연구소 방문

장로교 최대 교단 합동, 총신대, 대신대 총장 역임, 종교개혁 연구, 며칠 전 CTS 대담, 강 자매 <바른 성경과 사본을 찾아서>(2014년 9월 30일, 도서출판 흰돌, 453쪽)

저는 이기적 목사님으로부터 이 책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저는 [미국 뉴저지 주에서 목회하시던 이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 부흥 집회를 인도하였는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는 전수 사본(Received manuscripts) 즉 공인(共認) 사본(Textus Receptus)에서 번역된 영어 성경만이 참된 성경이라고 힘주어 말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이 공인(共認) 사본인 Textus Receptus에서 <킹제임스 성경>, <틴데일 성경>, <루터의 독일어 신약성경>, 칼빈이 주도한 <올리베탕 프랑스어 신약성경>, 또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이요, 청교도들의 성경이며 미국 건국의 성경이었던 <제네바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사본, 어느 역본으로,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 번역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네바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KJV)은 그 당시 종교개혁의 정신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 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정신 위에 [그리스어 본문인] 공인(共認)역(TR)을 바탕으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영역 성경들은 대중의 인기여 영합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뉴에이지, 로마 카톨릭 주의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적인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경 번역에 심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학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이들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문을 재구성한 것을 철저히 믿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이단이며 가장 잘못된 사본을 사용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안목으로 번역을 해버린 그들은 도리어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이 책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파이퍼 저, 이황로 역)은 영어 역본들을 사본과 정확히 대조하면서 참된 번역과 잘못된 번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매우 학문적이며 사본학의 근원을 파헤치는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책이 신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목회자와 모든 신학생들에게 두루 읽혀져서 성경 교육과 설교에 크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

결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땅에 기독교, 복음, 100년 이상 개역성경, 독보적 성경, 수많은 사람 구원

그러나 연구 결과 개역성경은 천주교 사본, 번역자들의 샤머니즘, 표준 문법에 맞지 않음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종교개혁 성경, 프로테스탄트

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없음이 없는 성경, 교리가 올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한성서공회와 덕망 있고 학식 있는 성경학자, 목사님들이 종교 개혁 본문을 채택해서 보완하면 개역/개정 등은 더욱 좋은 성경이 될 것이다.

이 땅에 기복 신앙(우상숭배), 교회와 목사들의 타락(제사장 타락), 종교 카르텔 형성

말씀의 기갈, 성도들의 탄식, 바른 성경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다. 지금 우리 손에. 살롬

주후 1521년, 독일 황제의 소환을 받고 보름스 제국 회의에 가는 것을 막으려는 친구들에게 루터가 한 말과 거기서 유래된 찬송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저들이(교황권 세력) 체코의 안 후스는 불태웠을지 몰라도 진리는 불태우지 못했소. 보름스에 저 지붕 위의 기와만큼이나 마귀가 많다 해도 나는 가겠소.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찬송가 384장, 300장 3절)

보름스 제국 회의에 참석한 황제와 제후들은 그에게 간단한 대답 하나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개혁 사상을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내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주를 받아 일으킨 것도 아니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교황이나 공회들도 반복적으로 실수를 범하며 자기당착에 빠진 것을 내 자신이 목도하였으므로 나는 교황이나 공회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경 기록에 의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경 기록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유에 의해 내 자신이 확신을 갖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고백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는 안전하지도, 합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God help me. Amen.

우리 모두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증언을 하기 원합니다.

샬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주번역자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눅21:14-15).